

70일 투혼 끝에 마라톤 코스 거리 완주한 소년

9살 소년이 70일이 넘는 투혼 끝에 마라톤 거리에 해당되는 42km를 걸어 감동을 주고있다.

지난 3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셰필드에 사는 소년 토비아스 웰러(9) 뇌성마비와 자폐증을 앓고있어 혼자서 걸을 수 없다. 그러나 웰러는 코로나19로 봉쇄가 있기 전 하루 50m씩 보행기를 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걸었다. 이렇게 웰러가 70일 동안 이동한 거리는 마라톤 풀코스 에 해당되는 총 42.195km.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 이제는 하루에 750m를 걸을 수 있다. 토비아스가 마라톤 풀코스 에 해당하는 거리를 완파한 이날, 지역 주민들은 풍선과 피켓 등을 들고 이를 축하했다.

토비아스가 불가능으로 보였던 도전에 나선 것은 자신이 생활했던 어린이 병원과 장애인 학교를 위한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토비아스의 기금 목표는 500파운드(약 620달러)였지만 최근까지 4만 6,000파운드(약 57,500달러)의 기금이 모였다.

토비아스는 "이렇게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면서 "이웃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니 매일매일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 70일에 걸쳐 마라톤 코스 거리를 완주한 토비아스 웰러. 사진=서울신문

토비아스의 엄마 루스 가버트는 "처음 마라톤을 시작할 때 아들은 보행기를 스스로 잘 밀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했다."면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자부심이 폭발할 것 같다."며 기뻐했다.

아직 토비아스의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50km 돌파를 다음 목표로 잡고 있다. 그의 도전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시설에 대한 투자가 뜰 수 밖에 없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훔친 절도범들의 최후

생전 처음 전기차를 훔친 절도범이 주유구를 찾지 못해 찢찢매는 모습이 주유소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때마침 경찰과 마주친 절도범들은 줄행랑을 쳤지만 결국 쇠고랑을 쳤다. 웃음을 자아내는 사건은 (현지시간) 발생했다.

지난 28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의 한 주유소에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선다. 당시 CCTV를 영상에는 주유기 옆에 조용하게 멈춘 차량에서 내린 두 명의 절도범이 주유구를 찾지 못하고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절도범들은 자동차 보닛까지 열고 살펴보지만 끝내 주유구를 찾지 못한다. 그때 마침 주유소에 브라질 도로경찰 순찰차가 들어선다.

경찰이 나타나자 눈치를 살피던 절도범들은 슬쩍 자동차에 올라 주유소를 빠져나간다. 하지만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2인조 자동차 절도범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 전기차에서 주유구를 찾고 있는 2인조 자동차절도단. 사진=서울신문

절도범들이 훔친 차는 100% 전기로만 주행하는 전기차였다. 절도범들은 "전기차를 훔친 건 처음"이라면서 "경험이 없어 전기차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번호판 확인으로 전기차가 도난 차량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절도범들이 타고 다니던 전기차엔 다른 승용차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속제 내려 매일 30km 이동하는 초등학생



온라인으로 속제를 내기 위해 매일 말을 타고 달리는 아르헨티나의 초등학생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라팜파주 산타이사벨에 있는 99번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레레미아스 오르디엔코(7·사진) 어린이.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가 상륙하자 3월 20일부터 봉쇄령을 내렸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루한 '코로나19 방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오르디엔코의 담임교사 소니아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을 만난다. 소니아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운동하기, 노래하기 등 비교적 간단한 속제를 내 주고 동영상으로 찍어 영상파일을 전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지에 있는 오르디엔코의 집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잡지 못했다.

거의 매일 걸려오는 담임교사의 안부 전화는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동영상 전송을 위해선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르디엔코의 부모가 찾아낸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작은 언덕이었다. 이날부터 오르디엔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툰 승마 실력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언덕까지 이동해 속제 동영상을 전송하고 있다.

소니아는 "팬데믹 봉쇄가 시작된 후 날씨가 좋으나 곳으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디엔코가 30km를 이동해 동영상을 전송하고 있다."면서 "어른에게도 쉽지 않을 일을 해내고 있는 제자의 책임감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